

〈이동진의 빨간책방〉 팟캐스트 방송 듣기
<http://itunes.apple.com/kr/podcast/id519983684>

이동진의 **빨간
큰
책방**

P o d C a s t

〈@14회 방송〉 소개된 책들



여우가 어린왕자에게 얘기합니다.
“네가 네 시에 온다면 나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야...”

기다림은 달콤한 설레임인 것 같습니다. '너를 기다리는 동안/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.' 황지우 시인이 그랬지요. 기다림은 서성임이고 뒤척임입니다. 연극 속의 블라디미르와 에스트라공... 그들은 오지 않는 '고도'를 50년 넘게 기다립니다. 그게 더 좋은 세상이든, 꿈꾸는 어떤 거든... 기다리는 일은 어쨌든 완전히 절망하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.

기다림 때문에 돌이 된 여자의 이야기를 우린 알고 있습니다. 당신에게도 한 번쯤...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린 시간이 있었겠지요. 기다림이란 '부채를 건디는 것'의 다른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.

어쩌면 기다리는 일로 다 끝나버리는 게 인생일 수도 있는데요. 하지만 기다리는 뭔가가 없다면 삶은 얼마나 푸석겨릴까요. 나무들은 벌써 기다림의 자세로 서 있습니다. 마음의 문간에 등불 하나씩 켜두고 계신가요?

안녕하세요? 여기는... <이동진의 빨간책방>입니다.

이동진의 빨간책방 #14



책, 일자를 만나다

오늘 '기다림'에 대한 얘기로 문을 열었습니다만, 특히 오늘을 기다린 분들이 많습니다. 지난 번 예고해 드린 뒤 기대된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럴만한 게, 한국 만화를 대표하는 두 작가를 한 자리에 모셨기 때문인데요. 요즘 직장인들이 월급날 다음으로 기다리는 게 화요일과 금요일, 이 분 만화 연재일일 거예요. '만화가 아닌 인생 교과서' '직장생활의 교본' '샐러리맨 만화의 진리' 이렇게 불리고 있다죠? <미생>을 그야말로 절찬리에 연재중인 윤태호 작가님 초대했습니다. 자, 그리고 <조명가게>라는 작품으로 또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분이죠. 외모는 명랑만화인데 속은 순정만화인 만화계의 귀요미, 청순남! 강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.

<미생>

열한 살에 한국기원 연구생으로 들어가 프로기사만을 목표로 살아가던 청년 장그래가 입단에 실패하고 '회사'라는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면서 시작되는 이야기. 다양한 업무가 숨 돌릴 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종합상사의 인턴사원으로 들어간 장그래. 검정고시 출신 고졸에 취미도 특기도 없지만 바둑을 통해 배운 신중함과 통찰력을 무기로 입사 P·T 시험을 거쳐 계약직이지만 정식 사원증을 목에 거는데... 동료와 상사들 사이에서 한 수 한 수 일을 배워가며 인생 또한 배워간다.



<조명가게>

어둡고 외진 곳에 위치한 조명가게에 뭔가, 어딘가 이상한 사람들이 찾아온다. 손톱이 손 안쪽에 박힌 여자, 귀에서 흙이 흘러나오는 남자, 끊임없이 땀(물)을 흘리는 남자, 입에 숨이 틀어박힌 여자 등... 그들은 냉동탑차와 마을버스의 충돌 사고로 삶과 죽음이 엇갈린 승객들이다. 그런데 그들은 왜 모두 어딘가 이상하고 왜 조명가게를 찾는 것일까?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일까?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알 수 없는, 죽음의 경계를 맴도는 사람들이 독립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들려주는 각자의 이야기들



여자애겐 일생에 한 번 냉정해야 할 순간이 온다

책 한 권이 만들어지기까지~ 편집자를 만났습니다.



혼자보다는 둘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계절, 겨울. 사랑에 빠진, 혹은 언젠가는 사랑에 빠질 여러분을 위해 사랑과 연애, 그리고 결혼을 이야기하는 에세이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. 『여자애겐 일생에 한 번 냉정해야 할 순간이 온다』입니다.

책은 여자가 냉정해야 할 순간은 바로 평생을 함께 할 사람을 결정해야 하는 결혼이라고 말합니다. 이 책은 총 36가지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공각지가 쓰인 연애 시절의 사랑을 안전한 어른의 사랑으로 성숙시키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.

남자를 사랑하지만 막상 결혼하려니 고민에 빠진 여자, 일일이 간섭하는 여자친구가 엄마처럼 느껴져서 괴로운 남자 등 각각의 에피소드는 이야기 형태로 전개되지만 최신 뇌 과학부터 문화인류학, 심리학, 철학, 전래동화 등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남녀관계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결혼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, '결혼하고 사랑이 식었다'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.



소리나는 책

다원상

이동진이 낭독해 드립니다!

오늘은 <다원상>이라는 책에 대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. 웬디 노스컷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, 이 책 굉장히 웃기면서 기상천외합니다. 논픽션인데,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잔인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.

책 제목이 <다원상>. 어워드 할 때 그 상인데요, 기막히게 멍청한 짓을 통해서 자기자신을 소멸시킴으로써 인류의 진화에 기여한 바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라고 코믹하게 붙인 상입니다. 사실 사람의 죽음이 우습게 볼 수는 없는건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이없는 행동을 해서 죽거나 다치거나 한 사람들의 실화들을 모아놓은 이야기예요. 그래도 사람 죽는 애긴데 웃길까 싶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읽다 보면 정말 미안하게도 '아,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끝낼 수 있을까' 싶은 느낌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까지 이야기하면 과하니까요, 이 책에 있는 사례들 중에서 죽지는 않는 사례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. 이 모두가 실화라는 것이 참 믿기지 않는데요. 하나씩 하나씩 몇 개 에피소드를 읽어드릴게요.

굉장히 블랙유머로 점철되어 있는, 무엇보다 실화를 모았다는 사실에서 더욱 놀랍기도 한 <다원상>이라는 책에서의 에피소드 7가지 읽어드렸습니다.





니나가 만나러 갑니다

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, 궁금한 점들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립니다.

2012년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죠. 많은 분들의 눈과 귀가 여기에 쏠려 있는데요.

이 중대한 결정, 어떻게 하면 제대로 내릴 수 있을 지 오늘 <속지 않는 국민이 거짓 없는 대통령을 만든다>를 저술한 **김상범 선생님**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.

Q 이번에 <속지 않는 국민이 거짓 없는 대통령을 만든다>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. 책이 흥미로운 이유는 '토론'을 대통령을 고르는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입니다. 대선 토론으로 정말 좋은 대통령을 골라낼 수 있을까요?

토론으로 좋은 대통령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토론만이 좋은 대통령을 고르는 데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이고 유일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. 대선 캠페인 전 기간 동안 후보자들의 생각을 중간에 어떤 매개체도 거치지 않고 직접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대선토론이기 때문입니다.

Q 대선 토론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사례가 있다면?

교훈적인 사례라 할 수 있는 것이 대선 토론의 시초라 할 수 있는 1800년대 있었던 링컨과 더글라스의 토론입니다. 서로 1시간씩 돌아가면서 재박을 하는데, 요즘처럼 2분씩 발언하는 것과 비교하면 굉장한 일이지요.

Q 대선 토론을 잘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는지?

한 후보의 발언을 두고도 사람마다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, 공저자들 사이에 6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한 적도 있습니다.

Q 후보자의 허세에 국민이 속지 않기 위해 유념해야 할 것은?

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각자가 면접관이 되었다는 마음으로 후보자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.

Q 2012년 어떤 대통령이 필요한지, 청취자들에게 이번 대선 토론, 이것만은 꼭 눈과 귀를 열고 들어라 말씀해주세요.

5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후보일수록 의심해야 합니다. 더불어 모든 정책에 대한 반대급부도 함께 생각해 보는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합니다.



<속지 않는 국민이 거짓 없는 대통령을 만든다> 김상범 저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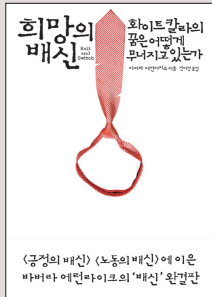
빨간책방의 숨은 악동 통과 제리

이런이런~ 통과 제리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?
오늘따라 빨간책방 안이 너무 조용하네요.

제리
통과?!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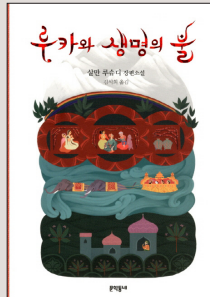


이동진, *최근에 산책 소개(이적은 읽지 않음...)* 내가 산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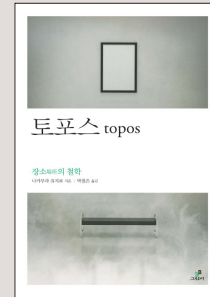
[희망의 배신]

빨간책방 2회 때 소개해드린 <긍정의 배신> 저자입니다. 지식인이 반드시 견지해야 될 입장 중 하나가 방법론적인 회의주의라고 생각하는데요.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생각하는 상식과 통념에 대해 의심해 보는 것, 그리고 그 의심이 정당한 지 스스로 파고들어 보는 것, 바버라 애런라이크는 그걸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믿음이 갑니다. 이 책은 부제처럼 화이트칼라의 실업문제를 비롯, 기업문화의 허상을 날카롭게 밝혀내고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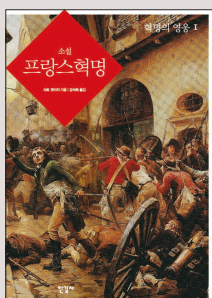
[루카와 생명의 불]

인도 출신의 영국작가 살만 루시디의 장편 소설입니다. 살만 루시디하면 <악마의 시>라는 소설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. 이란의 이슬람 최고지도자로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암살 위협 때문에 오랜 세월 숨어살아야 했던 비운의 작가이기도 합니다. 우리나라로 치면 천명관 작가와 비슷한 화술을 갖고 있는 작가입니다. 이 책은 신화적이면서 환상적인 루시디 특유의 방식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.



[토포스]

토포스가 그리스어로 장소라는 뜻이거든요. 일본 철학자인 나카무라 유지로가 쓴 이 책의 부제는 장소의 철학입니다. 제가 좋아하는 테마가 시간, 공간이라는 테마인데요, 예전에 공간의 역사라는 대중과 학교양서도 좋았는데 이 책도 그래서 바로 구입했습니다.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워 160여 페이지 밖에 안 되지만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. 물리학의 '장'의 문제부터 언어적인 토포스의 테마까지 다루는 주제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.



[소설 프랑스혁명]

사실 소설 000 이런 거 별로 읽고 싶지 않는데, 프랑스혁명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역사속의 단일 테마로 프랑스혁명만큼 흥미진진한 테마도 드물거든요. 사토 겐이치는 중세 유럽을 무대로 한 작품들을 전문적으로 쓰는 작가라고 하는데요. 무려 6권이 되는 대하역사소설입니다. 굉장히 스피디하고 생생하게 서술해나가는 책으로 보여요. 프랑스대혁명을 소설로 읽으면 어떨까 궁금합니다.



[노랑무늬 영원]

한강 씨의 세 번째 단편소설집이죠. 모두 7편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한강 씨의 소설은 시적인 문체이면서도 굉장히 응집력이 강해요. 그래서 그 문체를 읽는 맛으로 쏙 빠지게 하는 소설들을 쓰고 있어서 흥미롭구요. 작품에 고여있고 배어있는 정서 때문에 좋아합니다. 고요하면서도 쓸쓸한 정서일텐데, 직접 빈 적은 없는데 성격이 이런 문체 속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.





Closing Poem

십오 축

by 최종천

BGMs

오프닝

Carcass (by NarcissCreativeLab)

책, 임자를 만나다

우리가 함께라면 (by 좋은친구)

에디터스 통신

나의 목소리 너의 메아리 (by 스프링 필드)

로고송

요조(YOZOH)

소리나는 책

first kiss in the rain (by 스프링 필드)

니나가 만나러 갑니다

morning glory (by 배기수)

툼 & 제리

반디송 (by 유리밥그릇) / 고양이행진곡 (by 심동현)

클로징

first kiss in the rain (by 스프링 필드)

스태프

진행 이동진 PD 박미정 작가 허은실 기획 및 제작 왕인정, 허윤경

